재난취약지 안전점검 안전한 포천만들기

37개 사회복지시설, 34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포천시는 지난해 말부터 재난대비 관련 시민단체·소방서 및 관련부서 합동으로 관내 저수지 및 낚시터,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등 155개 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전하고 사고 없는 포천시를 만들기에 나서 지역주민들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포천시 산정호수 등에서 겨울철 일어나기 쉬운 익사사고에 대비 ▶재난안전선설치▶현수막 게첨▶재난대비 관계자 교육실시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관내 운보원 등 37개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하여는 전기·소방 시설 등 안전관리실태와 유사시 긴급대피시설 확보 및 기능유지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자에게는 안전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또한 관내 목욕장 등 34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지도하는 등 안심하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포천을 구현키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포천을 만들기 위해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그린농업대학 제3기 수강생 모집

포천시는 21세기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게 될 포천그린농업대학 제3기 그린경영과정 수강생을 1월15일부터 2월27일까지 모집한다.

포천그린농업대학 원서교부와 접수처는 농업기술센터 본소 및 각 읍면동 지소에서 이루어지며, 포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50명을 모집한다.

한편, 올해로 3년째 운영되는 포천그린농업대학 졸업생은 91명이다.

아름다운 '광덕고개 화장실'

커피향이 나는 카페같은 공간으로 꾸며

포천시는 최근 강원도와 경계지역에 위치한 광덕고개 정상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테마가 있는 화장실 '광덕고개 화장실'을 새로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광덕고개 화장실'은 물 공급의 어려움으로 사용이 중단되어 포천시민들과 포천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포천시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강원도 화천군과 협의하여 상수도 공급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관로에 연결 처리 등 근본적인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더불어 포천시 공중화장실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실용적이고 아름답게 장식했다.

실제 '광덕고개 화장실'은 화장실이라기보다는 따뜻한 커피향이 나는 카페와 같은 편안하고도 자연친화적인 화장실로 변모했다.

외부는 낙엽을 배경으로 언제나 편하게 쉴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였으며 내부는 버섯으로 장식하여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살리고 실내에 비치된 좋은 글귀는 이용객들에게 교훈을 주며 화장실 안에서 흐르는 음악은 이용객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휴일과 주말을 맞아 포천시의 광덕고개를 찾은 한 관광객은 '포천시의 산자수명한 정취와 포천시의 화장실문화에 반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 포천시는 공중화장실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와 복지와 환경을 생각하는 테마가 있는 화장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욕심의 장애물

김 창 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벌써 정해년 시작했는가 했더니 1월도 중순을 넘어서고 있다. 유수(流水)같은 시간이다. 우리 인생길에는 욕심이라는 장애물(障碍物)이 곳곳에 숨어 있다. 이 덫에 걸리면 한 순간에 파탄을 맞게 된다. 어떻게 하면 이 덫을 슬기롭게 피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역량을 알아서 선택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욕심의 덫을 피하려면 요행이나 일확천금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요행이나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고(思考)와 말, 행동을 해 결국 파탄에 이르고 만다. 행복(幸福)은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로 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강요하고 있다. 때문에 자기의 역량(力量)에 맞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행복은 주어진다.

나아가서 우리가 욕심의 덫을 피하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섭리를 배워야 한다. 고사(古事)에 '종과 득과 종두득두(種瓜得瓜 種豆得豆)' 라는 말이 있다. 오이 심으면 오이 거두고 콩 심으면 콩 거둔다는 교훈이다. 그래서 성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갈라디아6장7절)에 말씀하신다. 정직 성실 근면 충성되게 사는 삶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 역사의 한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 받은 인물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욕심의 덫을 피하려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날 이 감사가 메말라 있다. 부모에 대한 감사, 스승에 대한 고마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런 냉혈적 동물을 양산함으로 이기(利已)만이 넘쳐 모든 관계가 삭막해지고 있다.

금년은 정해(丁亥)년이다.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더불어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 아름다운 행복의 삶을 넓혀 보자. 성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있다.

로마서 12장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문의) 031-532-2489

특별기고

자연친화적 설계 – 바람

장 덕 철
(포천 노인전문병원 한방원장)

건축의 역사는 길다.

신문에 연재되는 건축칼럼에 건축의 - 특히 재료별로 분류되는 건축의 - 자세한 부분까지 〈말〉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란 건축이야기가 이야기로만 진행되어야하는 한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흙벽돌을 만들어내는 〈틀〉을 그림과 사진이 없이 이야기로만 진행되어야 하는 한계를 말한다. 〈기술적〉인 이야기만을 하기로 하자면 더욱이 그러하다. 이러한 한계때문에 본 칼럼에 드리는 이야기는 자연 건축의 뒤에 숨어있는 〈원리나 철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한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뒤 산업혁명 이전까지의 장구한 시간동안 이루어져 온 건축은 자연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자신들의 건축이 〈자연건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그것이 그들 건축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자연건축이라는 인식은 그것에 대립되는 언어, 예를 들어 〈인공건축〉이라는 말이 있을 때 더욱 사람들의 인식을 선명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옛 시대에는 〈인공건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자연건축이라는 개념도 발생하지 않았다.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긴 시간동안 축적되어 온 지혜가 있다.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과학문명이 발달된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축적되어 온 지혜〉를 과학이 없었던 시대의 고리타분한 잔소리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건축에 있어서도 그렇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집 - 초가집을 보면 그 속에는 아무런 원리나 철학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쉽상이다. 지지리도 못살았던 사람들의 집.

몇 토막의 나무와 흙과 볏짚으로 얽어놓은 집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숨어있다. 그런 지혜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자연〉에 가까운 건축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지역의 옛 건축은 그 지역 특유의 건축 재료와 기후를 그대로 반영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지역의 자연을 따르는〉건축이다. 그 지역의 자연을 따르는 지혜는 사람들의 직관과 경험에서 나온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인식은 그 지역 사람들의 특유한 가치체계 -종교, 사상,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예를 들어,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연과의 별개 또는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로 볼 것인가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즉, 어떤 지역의 건축이란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기후와 자원)과 정신적 환경(종교, 사상, 문화, 제도)의 영향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지역적인 차이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건축은 먼저 자연을 따르는, 자연에 순응하는 건축이었다. 다음회 부터는 이러한 자연을 따르는 건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야기 해보기로 하자. 그들의 재료와 기후에 어떻게 순응하였는가를 알아보자.

필자연락처 : 011-628-4214

보육상담 16

2007년 달라지는 보육제도(2)

1. 기본보조금제도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아동별 지원금액 인상하였습니다. (지원단가 : 0세 249→292천원 / 1세 104→134천원 / 2세 69→86천원)

유아(3~5세)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를 06년 10월부터 시범 운영 실시하여 '08년 본제도 도입에 대비(지원단가 : 42천원)

2.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

- 국공립 시설 신축 112개소, 장애아전담 신축 10개소

-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신규)

신규시설 137개소, 기존시설 100개소 등 전국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3.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보육시설간 균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

표준보육과정 법제('06년)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보육시설간 균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0~5세)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07년 하반기)하여 보육시설의 교사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의 전인발달 및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16만원이하	144만원이하	168만원이하	193만원이하
3층	165만원이하	184만원이하	197만원이하	217만원이하
4층	231만원이하	258만원이하	269만원이하	288만원이하
5층	334만원이하	369만원이하	384만원이하	411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합니다.

안경준
중앙특수어린이집 원장
(031-534-0277)

포천신문 골프회 2007년 첫 정기라운딩

▶일시: 2007년2월22일 목요일 ▶장소: 아도니스 CC

포천신문 골프회는 건전한 골프경기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실력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고 언제나 바르고 깨끗한 뉴스를 전달하는 포천신문 위상에 걸맞는 품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회장	박노현	자문위원	회원	최정이	운영위원
부회장	황광익	운영위원	회원	김태규	운영위원
상임고문	최호열	발행인	회원	이수복	운영위원
고문	한희준	자문위원	회원	박영주	운영위원
경기위원장	박승찬	운영위원	회원	박영선	조사위원
감사	박운종	자문위원	회원	조정선	조사위원
총무	김영복	편집국장	회원	양종진	조사위원
회원	강경만	자문위원	회원	이찬우	조사위원
회원	윤종하	자문위원	회원	윤이용	운영위원
회원	최두열	전무이사	회원	성능모	운영위원
회원	나근수	운영위원	회원	정한섭	운영위원
회원	이희자	운영위원	회원	안병호	자문위원